

중국 반독점법 대응세미나 11월27일 개최

대한상공회의소는 중국 반독점법의 주요 내용을 분석해 국내기업의 적극적인 대응 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중국 반독점법과 국내기업의 대응방안 세미나>를 11월27일 상의 소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2007년 8월30일 개최된 제10차 중국 전인대 회의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거나 담합하는 등의 행위를 막는 반독점법이 통과됨에 따라 중국에 진출했거나 진출을 고려 중인 국내기업에게 막대한 영향이 우려되고 있고, 특히 중국 기업과의 M&A, 판매가격책정 등에 있어 많은 규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세미나에서는 박제현 공정거래위원회 중국담당관이 중국 반독점법 주요내용과 향후 대책에 대한 주제 발표를 할 예정이다.

<화학저널 2007/11/22>